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4316호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文정권 현주소]
기업 옥죈 결과는
나라빚 늘고
1% 성장률 '부메랑'
03

코스피 2142.64 (+12.40)
코스닥 672.18 (+3.73)
금리(국고채 3년) 1.52 (-0.03)
환율(원·달러) 1157.50 (-1.70) 〈5일〉

바이오 'CB 폭탄' 터질라 6500억 조기상환 리스크

코스닥 상장 주요 바이오社 CB 조기상환 리스크 확대

잇딴 신약 임상실패 쇼크에 주가 하락 등 악순환 우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CB)가 되레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의 임상 실패에 따른 충격이 업종 전체로 번지며 CB의 조기 상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안 그래도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채권 상환과 주가 하락의 이중고를 겪으며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졌다.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CB 만기 상환 잔액은 6500억원에 달한다. 침체된 시장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조기상환 압박 심해져

신라젠은 지난 1일 1100억원 규모의 CB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펙사벡'의 간암 치료 임상 실패 이후, 주가하락이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측은 "전환사채 이자율이 6%(기존 3%)로 상향되면서 고율 이자로 인한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요구가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젠이 발행한 CB는 내년 3월부터는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했지만, 주가가 그때 까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가 없었던 셈이다. 신라젠은 CB 전환가액을 기존 7만111원에서 5만7200원으로 한차례 낮췄지만, 지난 1일 기준 신라젠 주가는 1만8050원에 불과했다.

〈바이오 기업 CB 미상환 잔액 현황〉

(단위 : 억 원)

기업명	CB잔액	만기일
헬릭스미스	약1035	2023년 9월
파멥신	1000	2024년 5월
에이치엘비	889	2020년 7월부터
에이치엘비생명과학	713	2021년 3월부터
바이오리더스	571	2021년 3월부터
제넥신	500	2023년 6월
이수앱지스	400	2024년 4월
아이진	239	2021년 12월부터
씨티씨바이오	210	2023년 9월
한스바이오메드	200	2023년 6월
바이오니아	200	2024년 10월
바이넥스	200	2020년 6월
EDGC	200	2022년 7월
마크로젠	약 170	2020년 2월부터
진매트릭스	142	2021년 1월부터
강스템바이오텍	120	2021년 9월
센트럴바이오	120	2022년 6월
수젠텍	100	2024년 9월
현대바이오	95	2022년 1월

*2019년 반기보고서 기준 /금감원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센트럴바이오는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영향으로 세차례에 걸쳐 20억원 어치의 CB 조기상환에 나선 바 있다.

회사측은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투자자 상환 요구로 인해 만기 전 사채를 취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상환해야 하는 CB 잔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센트럴바이오의 CB에 대한 조기 상환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CB의 주당 전환가액은 1135원이지만, 현재 기업 주가는 743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임상 중단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들도 대규모 CB 상환 잔액이 남아있어 우려가 커진다.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 임상 실패로 위기를 겪은 헬릭스미스 지난 해 9월 발행한 회사채 1000억원과 계열사인 제노피스가 발행한 34억원을 포함, 1034억8000만원 규모 CB를 발행한 상태다. 만기는 오는 2023년 9월이다. 에이치엘비와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각각 889억원, 713억원의 CB 상환 잔액이 남아있다. 만기는 내년 7월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역시 오는 2021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120억원 규모 CB를 발행한 바 있다.

◆주가 하락으로 '이중고'

CB 조기상환 리스크가 업종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B는 회사채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 메자닌의 일종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스피, 6개월 만에 최고치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2.40포인트(0.58%) 오른 2,142.64로 거래를 마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0원 내린 달러당 1,157.5원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AI 한계 넘어 AGI… 삼성, 인공지능도 '초격차'

(인공범용지능)

삼성전자 'AI 포럼 2019' 성료

JY, 미래 먹거리 육성 의지 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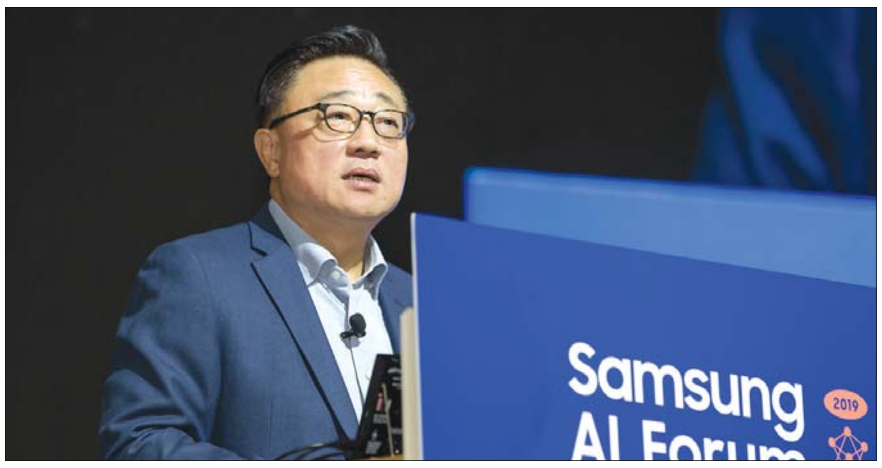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포럼 2019' 이틀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래 먹거리 육성을 향한 의지도 다졌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R&D 연구소에서 삼성리서치 주관 포럼 이틀째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개회사에서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AI가 5G, IoT 기술과 연결되면 라이프스타일에도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래 기업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해야 하며, 도전 정신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한 삼성전자가 미래도 이끌어나갈 것으로 자신했다.

고 사장은 삼성전자가 AI를 '4대 미래 성장사업'으로 선정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세계 5개국, 7개 글로벌 AI 센터를 운영하며 발전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IM부문 고동진 사장이 AI포럼 2019 이틀째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앞으로는 AI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AGI(인공범용지능)'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더욱 획기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가 AI 개발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이재용 부회장 역할이 컸다. 지난해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사업에 180조원 투자를 밝혔으며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5개국에 AI 연구센터를 확보하기도 했다. 반도체비전 2030을 통해 133조원을 들여 AI 근간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도 약속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세바스찬 승 교수와 하버드대학교 위구연 교수, 코넬 공대 다니엘 리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을 영입하는 데에도 직접 나서 AI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재웅 기자 juk@

내년도 암울한 경제전망 성장률 1%대 예측 속출

국내외 연구기관 '부진 지속' 예상

정부·한은 등 "2%대 회복" 전망도

내년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다. 올해 2%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는 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대 전망 속출…"당분간 2%대 힘들다"

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잇달아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나섰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0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성장률을 올해는 1.8%, 내년은 1.9%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민간부문의 부진이 길어지며 정부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2%대 성장률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생산가능 인구 급감, 투자 부진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글로벌 분업체제 약화 등과 같은 요인이 더해지면 성장률 2%대 시대가 조기에 종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LG경제연구원도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는 2.0%, 내년에는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둔화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투자가 줄면서 제조업 고용여건이 나빠질 수 있어서다.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중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6%로 하향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다. BoA메릴린치(1.6%), 모건스탠리(1.7%) 등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

이처럼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글로벌 성장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낮은 성장세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야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다 수출 부진과 민간 투자 둔화로 내년에도 성장세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내년에는 회복"…낙관하는 정부

반대로 2%대를 전망하는 곳도 있다. 정부(올해 2.4~2.5%, 내년 2.6%)와 한국은행(2.2%,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2.3%), 국제통화기금(IMF)(2.0%, 2.2%) 등 상당수 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는 2%대 중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처도 '2020년 및 중기 경제 전망'에서 "내년에는 내수 부진이 완화하고 수출이 소폭 증가한다"면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이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희주 기자 hj89@